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 결산 보고

한국불교 세계화와 지역불교의 활성화에 기여

▼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여수 한국대회 기념 사진

1950년 스리랑카에서 창립하여 전세계 불자의 화합과 교류를 목적으로 매 2년마다 열리고 있는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이하 'WFB')가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WFB 대회를 통해 불교기 제정, 불기 통일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현재까지 대승, 소승을 망라한 불교계 최고 최대 규모의 불교도 대회로 알려져 있다. 1990년 대회를 유치한 이래, 20여 년이 지난 2012년 6월 11일부터 15일간 EXPO 개최 도시인 여수에서 '21세기 불교생태환경 사상과 수행'이라는 주제로 WFB 본부,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주최, WFB한국대회 조직위원회의 주관으로 두 번째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다.

WFB 대회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세계 40개국, 170개 지방간의 대표와 대표단이 참여하는 행사로 최근 24회, 25회 대회는 500여 명 이내의 참석자간 대화, 친목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국제대회'의 성격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이에 합당한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불교세계화와 지역불교활성화라는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대회 준비과정부터 '학술대회', '비즈니스포럼', '한국불교문화 홍보'를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적극 추진하였고, 이후 대회 이후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대회 진행과정에서 지역의 조직과 협력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불교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회향하기 위해서 주최측인 WFB 본부(태국),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호남6본사, 지역사암연합회의 역할과 책임 구분이 필요했으며, WFB 조직위원회 출범식(2011년 11월 23일) 이후 집행위원장(진숙) 스님을 중심으로 매주 1회의 실무회의, 매월 1회의 확대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팀장 3명과 사회부 국제팀장, 중앙신도회 국제팀장, 실무 간사 1명, 지역본사 중무실장, 지역의 업무 조력자(자원봉사, 대외기관 협력부)가 참여하였다. WFB 한국대회 조직위원회의 총괄 관리를 중심으로 각 참여 주최간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 WFB 태국본부는 초청의 대상 선정과 WFB 진행



행사에 대한 총괄을, 대한불교조계종은 수송(인천-여수간), 학술포럼, 의전 협력을, 중앙신도회는 WFB 비즈니스 포럼 준비 및 대회 진행 자료집과 WFB와의 원활한 연락과 협조 관계를, 호남 6본사는 지역사회문화행사의 협력과 신도에 대한 홍보를 각각 분담하여 대회 준비를 하였다.

본 대회는 국제대회로서 한국불교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약한 호남불교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학술포럼, 불교문화체험 등에 집중적인 역량을 모아왔으나, 대회 초반부터 모든 여론의 중심이 WFB 한국대회에 모아지지는 않았다. 학술포럼, 문화행사를 통해 세계불교와 한국불교계의 소통을 도모하고, 한국 불교 문화를 범세계적으로 홍보하여 한국불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이를 계기로 국제 사회에 한국불교계의 역량을 확대하고자 했던 계획이 '중국-티베트'라는 정치적 문제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으로 큰 차질을 빚었다. WFB 본부 역시 정치적 문제로 인한 대회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중국-티베트의 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적절한 대응력을 보여주지 못하여, 개회식 진행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점(회장의 늦은 참석), 사전에 협의되지 않고 대회 기간 중 태국으로 출국한 점은 WFB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인지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참가자의 만족도와 별개로 대회는 전반적으로 국내 참가자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행사 준비와 진행상의 실무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통해 점검해 보면, WFB 한국대회 추진의 주체 문제가 대회 시행 전까지 문제되었던 점, WFB 본부와 대한불교조계종, WFB 한국대회 조직위원회 간 직접적인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WFB 대회 이전 종단내 대사회적 여론의 악화로 인해 대회가 직간접적인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점, 중국-티베트로 대표되는 정치적 문제를 종교행사에 적용하려 했던 중국 측의 행위와 이에 동조한 WFB 본부의 실책 등을 주요한 평가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적 인프라의 한계와 대회 유치기간부터 참여한 구성원간의 이해의 차이로 대회 준비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히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WFB' 대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가 높지 않아 대회 추진 과정 중 있었던 사소한

지만 잦은 판단 유보가 전반적으로 시간상의 문제로 이어져 세심한 준비가 될 수 없었던 점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전반적으로 역대 대회에 비하여 증가된 참석자 수,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포럼 참여한 및 토론 수준,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기획된 개회식, 지역민과 호흡하고자 노력했던 세계등축제, 지역의 문화적 욕구 해소와 지속적인 지역 포교를 책임지고자 기획된 뮤지컬 "카르마의 노래", 지역 행사상 불교인이 가장 많이 참석한 '세계고승수계법회', 한국 전통 사찰 순례를 통해 불교적 감흥을 전달했던 부분은 역대 WFB 대회를 살펴보더라도 큰 성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중국-티베트간 종교문제에 대하여 즉각적 결단을 통해 중국의 행위에 대한 사과와 WFB 본부의 모호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청한 종단의 자주적인 결정은 국내 불자의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본 대회가 한국, 중국 불교계간 새로운 관계 설정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본 대회를 평가하는데 주요한 시사점이라고 판단된다.

글_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

▶ 3면에 계속



대공정과 대자유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불교 종립대학 동국대학교에 1년 전 문을 연 국제선센터는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의 대중화·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원장 스님은 안국선원에서 20여 년간 2만여 명의 대중에게 간화선을 수행 지도하여 안국선원을 도심 포교와 재가 선수행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시킨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주지 수불(修弗)스님이다.



〈선원장 수불스님〉

에서 선센터를 다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영어권 스님을 초청하여 법문을 듣고 있다. 금년 2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8회를 개최하였다.

국제선센터에서는 현재 여름 7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8일코스 ‘간화선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접수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후 1주일 만에 각각 100명 정원이 모두 마감되었다. 수행도량은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동국대 교내 ‘깨달음의 법당’ 대각전이다. 이 법당은 실내가 원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하고 불상 뒤에는 만불을 봉안하고 있어, 장엄하고 그윽한 분위기에서 신심과 발심이 저절로 일어나 간화선 수행에 적합한 공간이다.

지난 1월 이곳에서 제 1회 ‘간화선집중수행’을 실시하였고, 이번에 2, 3회 수행을 실시하는데 수불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한국 불교의 전통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효과적인 수행법’이라고 인정받는 간화선은 이를 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즉, 근본적인 자기 모습의 발견, 삶의 전환, 일상생활에의 감사함, 정신적인 행복의 추구,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국제선센터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외국인 스님을 초청하여 개최하고 있는 영어법회이다. 외국인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나아가 모국

연사로 초청된 스님은 명법스님, 대봉스님, 환산스님, 대진스님, 선준스님(이상 미국), 관미스님, 명화스님, 우봉스님(폴랜드), 수안나스님(미얀마), 지정스님(한국)이고 재가자로 맥켄지박사(스위스)가 초청되었다. 법회일정은 매주 초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스님들의 법문은 영상으로 국제선센터 홈페이지(seoncenter.dongguk.edu)에서 시청할 수 있다.

국제선센터는 동국대학교 종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6월23~24일 교내 중강당에서 <제3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해외에서 30여 명의 학자와 수행자들이 참가하여 한국불교 수행의 토대이며 전통인 간화선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학술회의는 간화선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어서 마곡사에서 7일간 수불스님이 외국 학자들과 국내 외국인 등 모두 60여 명에게 간화선 수행을 지도하여 10여 명의 외국인이 용맹정진 끝에 마침내 정신적 벽을 뚫고 자신의 근원을 체험하는 환희심을 느꼈다. 이 외국인들은 간화선의 가치를 몸으로 체험하고 직접 선(禪)의 진수를 경험하게 해준 한국 불교에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는 한국불교의 전통수행법인 간화선 수행지도를 통해 현

대 경쟁사회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찾아주고, 간화선을 해외에 소개하여 인류로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에 눈떠서 평화와 생명존중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건설하게 하고자 한다.

글_ 동국대 국제선센터 김영수 과장

02-2260-3891

(위) 수불스님이 국제선센터에서 간화선 화두 법문을 하고 있다. (아래) 마곡사에서 외국 학자들과 국내 외국인 그리고 국제불교학교 학인스님들이 간화선 수행 정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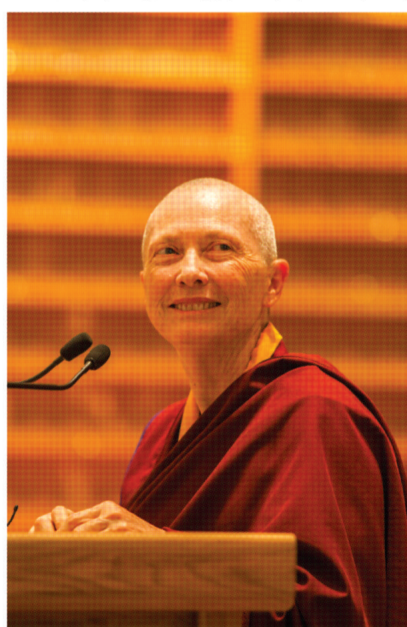


국제선센터, 가정에서 시작하는 템플라이프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법정)에서는 6월 9일 까르마 렉세 쯔모(Karma Lekshe Tsomo)스님의 ‘Life in Balance’, 6월 16일 수미 런던(Sumi Loundon)의 ‘가정에서 시작하는 불자의 길 템플라이프’ 등 초청 프로그램들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까르마 렉세 쯔모(Karma Lekshe Tsomo) 스님은 미국 샌디에고 대학 불교학 교수이며 전(前) 세계여성불자연합(www.sakyadhita.or) 회장을 역임했다. 스님은 1977년 티베트에서 출가하여 달라이 라마에게서 15년간 가르침을 받았으며 1982년 한국에서 비구니계를 받았다. 현재는 잠양재단(www.jamyang.org)을 설립하여 여성의 권익과 교육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쯔모스님은 이번 특별강연 ‘Life in Balance’에서 불교수행자이자 불교학교수로서의 길과 봉사해온 삶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나은 사회, 불교적 이념을 따르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말했다. 강연은 국제불교학교 권선아 교수의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수미 런던(Sumi Loundon)은 2001년 하버드대학 신학대학원에서 불교학 및 산스크리트어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졸업 후 배리불교학연구소(Barre Center for Buddhist Studies)의 부소장을 지냈고 국제불교지도자



단(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Ministers)에서 계를 수지하였다. 현재 듀크대학 불교공동체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듀럼불자가족회를 지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수미, 일미를 만나다』, 『청바지를 입은 부처』, 『붓다 그 첫 만남』이 있다. ‘가정에서 시작하는 불자의 길 템플라이프’는 바쁜 일상생활과 육아로 인해 생기는 스트



까르마 렉세 쯔모스님(좌)과 수미 런던(우)

레스를 명상을 통해 관리하는 법과 가족 간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을 설명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참가자들이 아이들에게 평화와 균형, 친절과 관용을 가르치고 가족구성원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방법을 제시했다. 프로그램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위해 베이비시터 자원봉사를 운영하였으며, 국제선센터 국제교장 명법스님과 국제선센터 G.E.P(Global Empowerment Project) 참가자들의 한국어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아이들에게 너무 급한 변화를 요구하지 말고 좋은 씨를 심어 놓고 지켜보며 기다려줘야겠다”며 “사춘기 자녀와 함께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국제선센터는 △자녀와 아빠가 함께 사찰요리를 만들며 소통하고 즐기는 ‘아빠와 함께하는 사찰요리 템플라이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마음의 길을 걷다’, △청소년 심리치료, 명상, 학습지도 등이 결합된 ‘푸른솔 공부방 템플라이프’ △6월 17일에 있었던 헤민스님의 ‘마음치유 콘서트’ 등 다양한 치유와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글_ 국제선센터 국제주임 김용태

www. seoncenter.or.kr

농업으로 새 삶의 비전을 만들고 있는 마사이족

지구촌공생회 “푸른 농장”, 케냐에서 농업교육 지원

① 마사이족 ② 케냐 인키니 농장 ③ 수확된 토마토

불교계 대표 국제개발구호 NGO (사)지구촌공생회와 케냐 마사이족이 일군 농장이 푸른 결실을 맺고 있다. 2009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케냐 카지아도 지역 인키니 농장은 2010년부터 푸른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5에이커(약 6,000평) 규모의 농장에서 케일, 시금치, 토마토, 양파, 옥수수, 수박, 고수, 피망이 수확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옥수수와 콩이 첫 번째로 수확됐다.

지구촌공생회는 유엔이 정한 새천년개발목표 중 하나인 절대빈곤과 기아퇴치를 위해 불교계 최초로 2007년 아프리카 케냐에 진출했다. 우리에게 사파리와 커피로 잘 알려진 케냐는 오랫동안 지속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난 등으로 인해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GDP 994\$/2011년 기준). 이에 지구촌공생회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조와 그 소득이 다시 마을개발로 재투자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마을 공동 농장을 운영하고, 농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오래 전부터 유목 생활을 해오던 마사이 부족의 정착 생활을 지원하고 소득을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마을 공동 농장에서 함께 일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주인의식이 고취되는 효



과도 가져왔다.

인키니 농장은 130여 가구 주민들 중 매 주기별로 선발된 10명 남짓한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작물을 경작하고 그 작물을 판매한 수익금 50%는 농장에 마을 발전 기금으로 적립, 50%는 개인이 갖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마을 발전기금의 적립액은 289,173KSH(3,614\$)이고, 추후 저수지 구축비, 농장운영비, 농장 유지보수비, 장학금 등으로 쓰인다. 인키니 농장에 참여하는 마사이족 중 한 명인 마마 티티는 “지구촌공생회를 통해 농업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가내 소득에도 도움이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계속 농업을 통해 새로운 삶의 비전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촌공생회 케냐 지부에서는 지역개발사업 이외에도 가뭄으로부터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식수지원 사업, 아동들의 초등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초등학교 건립과 교육활동 지원 등의 교육지원사업 후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영화사의 후원으로 엔요노르 영화 초등학교를 건립했다. 더불어 지

구촌공생회는 지난 6월 29일 대학생의료봉사단체 프리메드와 협약을 맺고 산모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자보건증진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후원문의: 지구촌공생회 02-3409-0303
www.goodhands.or.kr

더프라이미스의 이색강연, 문화로 만나는 아프리카 마을 공동체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이미스(ThePromise)는 6월의 이색 강연으로 ‘문화로 만나는 아프리카 마을 공동체’를 소개했다. 강연은 아프리카 문화의 전반적인 이해, 인류학적으로 접근한 아프리카 현지 연구, 종교 연구, 공동체 특성에 대한 주제로 펼쳐졌고, 한국외대 아프리카 학부 교수 장용규, 아프리카 문화연구소장 이석호 등 4명의 아프리카 전문가가 참여했다. 특히 마지막 날은 19세기의 유럽이 제국주의적 마수를 아프리카로 뻗어나가던 시절 남아프리카에 살다가 유럽으로 끌려가 인종전시를 당했던 사라바트만의 비극적 삶을 추모하는 ‘부토 아리랑(‘부토’라는 춤의 형식을 빌려 혼의 소리를 담은 것)’이 부토 예술가 서승아씨의 공연으로 준비되었다.

강연은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문화 인류학자, 혹은 NGO 관계자들에게 실무적인 지식을 전해주는 자리가 되었다. 더프라이미스와 같은 개발 NGO는 최근의 문화인류학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 지역 주민들과 유대감(trapport)을 형성하고 그들의 삶을 공

유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는 개발 NGO가 현지 주민과 함께 학교, 마을, 그 터전을 꾸려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발판이 된다. 더프라이미스 관계자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전에 현지의 언어, 문화, 종교 등 기본적인 정보들을 배우는 장기간의 작업을 통해 향후의 아프리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향후의 비전을 제시했다.

급변하는 아프리카 현지 사업에 대한 예비 조사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이미스가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가 후원, 한국 해외 원조 단체 협의회, ODA Watch 아프리카 청년 활동가 팀이 협력하였다. 6월 4일에 시작된 아프리카 강연은 저녁 7시 성산동에 위치한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더프라이미스_ 070-7596-9989
www.thepromise.or.kr
www.facebook.com/thepromise 2008
twitter : @the_promise_

▶ 1면에서 계속

WFB 한국대회 대회선언문

“21세기 불교 생태환경사상과 수행”을 주제로 2012년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된 WFB 한국대회에 참석한 우리는, 세계와 불교와 관련된 문제들을 탐구하였으며, 만장일치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1. WFB 지역 지부는 인간이 만든 재앙과 자연재해를 줄이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 환경 보호 활동을 실천한다.
2. 세계의 지속적인 평화와 종교 평화를 이룩하고, 종교간 대화와 문화적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 불교 연대를 강화한다.
3. 세계 사회의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진흥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오계와 참선을 실천하고 강화한다.
4.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불교적 신념과 정체성, 존재를 침해하는 지역의 대중을 위해, 불교적 신념과 실천을 확산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을 집중한다.
5. 부처님의 관용과 자비의 가르침을 모든 존재에 확산하기 위해 인도주의 활동을 진흥한다.
6. 사회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경제 공동체내에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함을 장려한다.
7. 국제 사회에서 불교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해 불교 문화를 홍보하고 지원한다.
8. 불교 사회가 더 나은 미래 특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와 여성을 위해 일반 상식과 불교 윤리, 도덕적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제공하는 것을 촉진한다.
9. 불교의 유형 무형의 세계 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와 불교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국제적 기구들과 유네스코의 협력을 통해 불교적 가치를 소개한다.
10. 세계 곳곳의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그들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 프로그램과 불교 청년 개발을 개선한다.



미동부해외특별교구, 어린이·청소년 부처님 닦아가기 체험

불교를 직접 체험하는 어린이·청소년 여름 수련회가 조계종 미동부해외특별교구(회장 휘광스님) 주최로 6월28일부터 7월1일까지 뉴욕 업스테이트에 위치한 뉴욕 원각사(주지 지광스님)에서 열렸다. 여름 수련회는 미동부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찰에서 지내며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불교

캠프이며 뉴욕 일원 사찰들이 함께 하는 연합 행사이다. 사찰과 자연 안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등의 한국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템플 스테이'를 뉴욕 사찰에서 경험하는 캠프이

다. 참가 학생들은 매일 아침저녁 부처님께 올리는 예불과 108배, 공양, 참선 등 스님들이 하는 법당생활을 체험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예불을 드리며 예불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한편 도량청소도 하며 사찰에서의 예절도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협동심을 키우기도 했다. 이외에도 장기자랑, 성불도놀이, 만다라 문양그리기, 영화감상, 줄넘기, 물풍선 놀이, 자연

탐사, 산행, 단력 쌓기, 어린이 불교 생태 학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도법사로 원각사 주지 지광스님과 문종·지호·묘적·일진·대중·청호스님 등 뉴욕일원 사찰 스님들이 학생들을 인솔했다. 어린 불자들을 수호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않은 않지만 불교의 미래를 이끌 세대이기에 기대 또한 크다.

글_ 미동부해외특별교구 총무 문종스님



뉴질랜드 묘심사, 불자 키위들의 모임

묘심사는 1998년 명심월보살님의 원력으로 만들어진 한국교민을 위한 뉴질랜드 남섬 유일한 한국절이다. 이곳 교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 달에 두 번, 첫째와 둘째 주 일요일에 법회가 있다.

뉴질랜드에는 3가지 키위가 있다. 뉴질랜드인을 칭하는 키위, 먹는 키위, 키위새이다. 요즘 키위들이 묘심사에 찾아오고 있다. 작년 6월 달라이라마가 크라이스트처치에 다녀간 후 불자 네트워크가 키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정기적으로 미팅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 하반기에는 묘심사에서 모임이 있다. 티베트, 대만, 스리랑카, 태국 절 스님들이 오고, 키위들 명상그룹이 참가한다. 이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으며, 덕분에 키위들이 한국수행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어도 미흡하고 영문 불교자료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포교에 관심 있는 분들의 지지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크라이스트처치는 기독교 성공회가 압도적인 분위기인데다가 작년의 큰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이다. 한국교민들도 절반이 호주나 한국으로, 북섬으로 이주를 했고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곳은 가든시티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이고 남섬의 관문이므로, 개발이 되고 안정되면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글_ 뉴질랜드 묘심사 주지 본각스님
뉴질랜드 묘심사 +070-8795-6339

불교에서 보는 자유와 평화Ⅲ

이 글은 3월 22일 시카고 불타사 주지 현성스님이 시카고 신학대학에서 강의한 내용 전문입니다. 세계일화 16호에 이어 끝맺음을 합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6년 동안의 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설하신 말씀의 요약인데, 말로서 표현하면 오해될 여지가 많은 말씀이라 깨달아서 증득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스스로 보시바라밀과 지혜바라밀을 매일 새롭게 실천해 가는 수행적 측면에서 불교가 종교로서 존재하고 번성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각 국가에서 법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 법제도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전체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유 모드(mode)로 개혁해야 한다. 그 개혁에는 반드시 보시바라밀과 반야바라밀에 대한 이해와 수행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산업, 국경의 개념, 입법 정책 등의 개혁이 따라야 하며, 자원을 비롯한 모든 재원을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세계 인구의 개인 평균 소득을 증대할 수 있게 활용해야 한다. 이 개혁이 국가 상호간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 즉시 국방예산의 삭감과 전쟁으로부터의 자유, 핵무기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물량 이동의 통제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거주 이전, 취업 등 인간의 고유한 권리를 가로막는 이민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국방예산의 삭감은 지구상의 일체중생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유와 평화야말로 불교적 자유요 평화이다.

현재 각국에서 만연되고 있는 이기주의는 이 지구상에 모든 존재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를 불교에서는 나와 남과 세계를 해롭게 하는 사상으로 간주하고, 비(非)이기주의, 이기적인 나는 없다는 무아(無我)사상을 발원하고 실행하고자 한다.



시카고 불타사 +1-773-286-1551

헝가리 원광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승가공동체

2003년에 원광사를 세울 터가 정해졌다. 헝가리에 불교의 굳건한 기반을 마련함은 헝가리 사람들에게 삼보를 알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나를 길러준 헝가리에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필리스산의 좋은 터전을 찾기까지 일 년이 걸렸다. 필리스산은 헝가리인들이 영적인 에너지가 충분한 산이라고 생각하는 곳이다. 이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장소를 빠져나오던 중 필리스산의 한 계곡에 본능적으로 차를 세워 주변을 둘러보았고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주변이 온통 온화하게 느껴졌고 반가워하고 보호해 주는 듯한 형세의 산이었다. 잠시 참선을 한 후 "이곳이다!"라고 결정했다.

터를 발견한 지 반년이 지난 2004년에 땅을 구입했고 2005년 참선을 시작했다. 같은 해 현재 부주지인 덕해스님이 역사적



인 불사에 참여해 일꾼들을 도왔다. 2006년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과 스님 3분, 서양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량식을 거행했다. 이듬해 부엌과 화장실과 보일러실을 갖춘 건물을 세워 임시 법당으로 사용했다. 2007년에 선방 불사가 시작 되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덕해스님과 한국의 많은 시주자들의 도움으로 선방불사가 완료되었다. 3년의 시간이 걸렸다.

2010년 개원식에는 설정 큰스님, 향천사 주지 법정스님,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과 서양인 100여 분이 참석해 이날을 기념했다. 대웅전의 터도 결정해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불사를 하기로 했다. 2007년부터 동안 거를 시작했고 여름에는 100일 기도를 한다. 이와 함께 단기 수행을 하고 있고 음력에 맞춰 4월 첫째 주말과 12월에 각각 부처님오신날과 성도재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012년 7월 원광사는 조계종에 등록 절차를 마무리 하고 수덕사의 말사가 되었다.

우리 모든 승가 구성원들은 보살도에 대한 믿음으로 과감히 서양에 보리수를 심기 위해 끊임없는 선심과 열정, 노력을 기울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글_ 헝가리 원광사 주지 청안스님
www.wonkwangsa.net/ko

미서부지역 연합사찰, '자연... 그리고 명상' 템플스테이 진행

카멜 소재 삼보사주지 대만스님에서 주관한 '제7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와 템플스테이'가 6월 14일~20일까지 6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북가주승가회, 자비봉사회, 북가주 골프연합, 그 외 북가주 재가불자 KAYBA, 북가주 청년모임 등에서 후원했다. 미국 서부지역 사찰 스님들의 공식모임에서 합동으로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 형식의 템플스테이가 벌써 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사찰 예절 및 명상, 발우공양에 대해 배웠고, 카약 타기, 하이킹,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활동도 즐기며 보냈다. 밖에서 자연을 통해 명상하는 예코 메디테이션 중에는 아이들이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세상과 통하는 시간인 듯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운영된 이번 행사는 스님들과 전문가들에게 배우는 불교공부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체험들과 그룹 프로그램을 통해 전 미주에서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체

험을 나눌 기회를 제공했다.

지도법사로는 윤월(삼보사, KAYBA 지도법사) · 형전(보리사 주지, TARA 지도법사) · 혜주(아동학 전공 박사과정 중) · 일진(유학사) · 주호(육련암, 불교아동학정공) · 성향(다년간 캠프 경험)스님이 함께 하여 청소년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갖게 했다.글_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

카멜 삼보사 +1-831-624-3686
오클랜드 보리사 +1-510-594-7687

- ① 입재식 후 기념촬영
- ② 템플스테이에 동참한 스님들
- ③ 발우공양 중
- ④ 카약타기에 앞서 안전 교육 중



미동부해외특별교구, 제1회 해외특별교구 총회 개최

불기2556년 6월 22일 제1회 해외특별교구 총회가 뉴욕 불광선원에서 진행되었다. 교구장 휘광스님을 비롯하여 이사진 스님 및 포교원 전법단장 계성스님을 포함 총 15명의 스님들이 교구 총회에 참석하였다. 안전으로는 아직 하안거 결계신고를 하지 않은 스님들께서는 하루 속히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와 침부서류를 교구로 보내주시기 부탁하였으며, 해외특별교구 후원금이 제1회 종무회의에서 각 사찰별로 \$1,000로 결정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해외특별교구 소식 보고가 있었다.

△불교신문 부처님오신날 기념호에 해외특별교구 광고 게재, 영문판에도 광고를 게재하여 미동부 소속 사찰에 발송 하였으며, 사찰음식 홍보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도 배포 △대통령 봉사상 신청 가능 : 나이 제한 없이 각 사찰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 중 해외교구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에 한해 각 사찰 주지스님의 추천으로 대통령 봉사상 신청 가능 (참고로 오는 10월 6일 토요일 Korean Parade 때 봉사한 불자는 30시간 봉사 인정) △6월 29일 교구장스님과 사무주임이 해외특별교구 주최 어린이 · 청소년 연합캠프 격려차 원각사 방문. 수박4통과 아이스크림 60개를 간식으로 지원 △불광선원에 행사유.

마지막으로 오는 10월 6일(토요일) '추석맞이 코리아 퍼레이드' 계획한 논의가 있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하여 맨하탄 41st St ~ 26th St. 까지 6th ave.에서 행진한다. 그리고 당일 아침 50인승 버스 2대가 각각 플래싱과 뉴저지를 운행하며, 각 사찰 스님과 신도는 10시 전에 41가 6th ave.에서 모이기로 논의 하였다.

글_ 미동부특별교구 총무 문중스님

LA 서래사, "스님의 날" 공승법회 봉행

불기 2556년(2012년) 7월11일, 미국 LA 서래사(西來寺: Hsi Lai Temple) 불광회의 중국 신도들이 "스님의 날(Sangha Day)"을 맞이하여 LA 인근에 있는 각국사찰(各國寺刹)의 승려들에게 사사(四事)공양을 올리는 "공승법회(供僧法會)"를 봉행했다. 20여 년 전부터 이곳 LA 서래사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뜻 깊은 행사는 신도들이 스님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여 공양을 올리는 것인데, 국경을 초월한 아름다운 행사라고 생각된다.

LA 고려사가 2003년 지금의 자리로 이사를 온 후 2004년부터 서래사 신도들이 공양을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스님의 날"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서래사 불광회 회원들이 고려사를 방문한 기념사진을 연꽃동산(www.koreasah.com) "미국 고려사-사진자료"란에 올려 본다.

모든 불자들이 불법승 삼보를 공경할 때에 승보인 청정승가가 이룩되지 않을까 한다. 바라옵나니 이 인연공덕으로 일체중생이 다함께 성불하여지이다.

글_ LA 고려사 주지 묘경스님



뉴욕 청아사, 선재한국학교 단오재 운동회

한인 사찰 청아사 부설 선재한국학교는 6월 3일 청아사 신도회와 공동으로 아이젠 하위 팍에서 단오재 운동회를 열었다. 매년 6월 첫째 일요일 단오운동회를 개최하며,

대상은 사찰에 소속된 전 신도다. 사진은 운동회에 함께 한 한국학교 어린이들과 교사 및 학부모들이다.

뉴욕 청아사 1+718-886-0385



티베트 스님들의 가면 춤, 세계인들을 매료시켜

파드마삼바바의 탄생을 기리는 헤미스 축제

인도, 라다크 - 드룩과 불교도들의 헤미스 축제가 인도 라다크에 있는 헤미스 사원에서 7월 3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 헤미스 축제는 갈왕 드룩과 큰스님과 세계에서 모인 2,500여 명의 손님들의 축복 속에 라다크에서 제일 큰 절인 헤미스 사원에서 열렸는데, 8세기 히말라야 전역에 밀교를 전파한 파드마삼바바의 탄생을 기리는 축제이다.

드룩과 불자들은 이 전설적인 헤미스 축제를 매년 티베트 음력 10일부터 이틀간 열정적으로 이끌어 간다. 이 축제 기간은 라다크의 공식 휴일로서 라다크인들은 모두 최고 좋은 전통복식을 차려입고 축제장에 모여 든다.

첫째 날 모든 마을과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스'와 공연을 보러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여 들었다. 헤미스 축제가 절정에 다다를 때 행해지는 참스 춤은 스님들이 가면을 쓰고 하는 일종의 호법무(혹은 금강 무로 선이 악을 물리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님들은 정교하고 화려하게 채색된 전통 의복과 가면을 쓰는데 가면은 참스 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춤은 매우 느리게 추지만 기이한 느낌을 준다. 스님들은 심벌즈, 북, 나팔 등의 악기로 독특한 음색의 음악을 연주하여 관람객들을 매료시켰다. 축제가 열린 헤미스 사원의 도량은 향과 약초에서 나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해



마치 극락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둘째 날에도 스님들은 다양한 악기의 연주에 맞춰 전통춤을 공연하며 유명한 켈세 린포체가 실크 위에 그린 불화가 전시된다.

The Buddhist Channel [2012. 7. 7]

불교의 상품화를 반대하는 불자들의 거리 행진

태국, 방콕 - 부처님바로알기재단은 6월 30일 불자들과 함께 방콕의 가장 유명한 카오산로에서 불상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는 거리행진을 했다. 알려진 것처럼 불상과 부처님의 명호가 세계 곳곳에서 불경스럽게 사용되어 왔으나 그동안 불자들은 이에 침묵했다. 부처님바로알기 재단은 뜻있는 불자들을 모아 "부처님에 대한 불경을 멈추시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러 한다.

이 거리 행진에서는 부처님이 불교의 종조임을 보여주는 문구와 어떻게 부처님께 예를 표할 것인지 알리는 다양한 피켓들이 등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특히 부처님을 상술에 이용한 사진 위에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와 부처님 명호를 개의 이름으로 사용한 디즈니 영화 "Snow Buddies"에 "안돼"라고 쓴 피켓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불상을 상술에 이용한 많은 사례들이 피켓에 등장했다. 부처님바로알기재단은 이 거리 행진을 계기로 부처님과 부처님 명호를 그릇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세계인에게



(태국 빅부다 사원)

경각심을 일깨우려 한다. 이 재단은 태국에 근거지를 둔 비영리 자선 단체이다. 왕사론 재단 회장은 "불자로서 평화와 안정을 사랑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잘못 알아가고, 급기야 잊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불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침묵으로 방치해 왔다. 부처님이 문신이나 가구, 상표에 이용되고 상품화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불자들이 불상을 볼 때 얼마나 돈을 벌고 어떻게 즐길 것인가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자비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The Buddhist Channel [2012. 6. 27]

아밀라시리스님의 무한 자비행

스리랑카, 콜롬보 - 아밀라시리스님은 1988년 15살에 스님이 되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바쁜 일상에서도 시간을 내어 아픈 아버지를 찾아뵙곤 했던 효심 깊은 스님이다. 아밀라시리스님은 2004년 아밀라시리센터를 세워 현재 의지할 데 없는 병든 노스님 35분을 돌보고 있다. 아밀라시리센터는 풀가젤라 웰라와 지역에 있는 절에 있는데 이 절은 푸르른 나무들에 둘러싸인 조용한 곳으로 노스님들이 지내기 좋은 장소이다. 그러나 길이 불편해 응급 상황에서 노스님들을 차로 병원으로 모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아밀라시리스님이 이 일을 시작한 것은 2004년 1월 쿠루네갈라 마을의 한 버스 정거장에서 위독한 상황에 처해 누워 있던 한 노스님을 우연히 만나면서부터이다. "노스님께 말을 걸었을 때 갈레웰라에서 왔고 7일 동안이나 그곳에 누워 있었다고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무 약하셔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난 스님을 절로 모셔와 돌봐 드렸다." 스님이 절 땅에 노스님을 돌보는 센터를 세우게 된 연인이다. 2004년 설립 이래 40여 명의 노스님들은 병을 치료하고 소속 절로 되돌아갔지만 26명의 노스님들은 이 센터에서 열반하였다. 아밀라시리스님의 말에 의하면 모든 스님들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노스님



(스리랑카 고대 도시 콜로루바에 있는 부처님)

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더 넓은 땅이 필요하므로 바로 절 옆 땅을 사 들어 증축해야 한다고 한다.

대가족제도가 일반화된 스리랑카에서 노스님들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이 대중에게 익숙지 않은 개념이지만 현실은 냉혹해서 이런 곳이 없다면 노스님들은 커다란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Lanka Daily News [2012. 6. 23]

국제불교 단신

◆ 비구니연맹의 국제비구니날 선포

비구니연맹(The Alliance for Bhikkhunis, AfB)이 2012. 9. 29일을 올해의 국제비구니날로 선포했다. AfB는 비영리재단으로 비구니 승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구니를 돕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단체이다. 현재 잡지 Present: The Voices and Activities of Theravada Buddhist Women을 발간하고 있다. www.bhikkhuni.net

◆ 프랑스 부시 세인트 조지스 사원, 유럽에서 제일 큰 절

부시 세인트 조지스 사원이 프랑스에 지어졌는데 유럽에서 가장 큰 사찰이다. 6월 24일 정계와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완공식을 가졌다. 이 사원은 대만 불광산사의 유럽 본부이다. 법당은 4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실크로드 불교유물 전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2013년 2월 13일까지 "5~8세기 실크로드 위의 불교"라는 주제로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는 6월 2일에 시작되었고 그림, 조각, 금제품, 불두 등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등 중앙아시아의 불교유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북인도, 카시미르와 북서부 파키스탄(간다라와 스와트 계곡) 불교 사회들 간의 상호교류 네트워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집중조명

수행하면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될까?

미국 콜로라도 나로파 대학의 교육 명상 프로그램

엔지 메이스는 지난 목요일에 먹은 점심을 생각하면 맛이 아니라 소리가 떠오른다. 엔지와 동료 교사들은 나로파 대학의 '깨어 있는 선생님' 수업을 수강 중이며 현재 점심을 먹으면서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다. 선생님들은 말없이 먹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음식의 맛과 식감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다. 엔지 선생님도 주변의 대화에는 아랑곳없이 음식을 씹을 때 나는 소리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 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소리이다.

■ 스트레스가 심한 교사들

눈이 마주치면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는 엔지 선생님은 "알아차림에 능숙해지려면 멀었다. 아직 초보자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엔지 선생

님은 동료들과 함께 마음 수행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나로파 대학의 교육 명상 2년 과정에 등록했다. "지난 몇 년간 교사들과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보아왔다. 뭔가 허전했다. 많은 교사들이 이 수업에 호응할 것이다"라고 엔지 선생님은 말했다.

교직은 스트레스가 심해 그 관리가 필요한 직업으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르며 이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든다. 나로파 대학과 게리슨 연구소의 교육 명상 과정은 교사들이 몸과 마음의 알아차림이라는 불교수행으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다.

■ 교실 내 스트레스 연구에 3백만 5천 달러를 지원하는 미국

정부 지원이 아직은 적은 수의 교사에게

한정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100여 명의 교사가 나로파 대학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그러나 경험자들은 명상수행 덕분에 교사들이 건강해졌다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학교 당국에 수행한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면 많은 교사들이 수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작년 미국 교육부는 일부 뉴욕 시립 학교 교사의 복지 시범 비용으로 3백만 5천 달러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복지 프로그램이 교사, 교실 분위기, 학생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것이다. 게리슨 연구소 소장 제닝스는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선생님에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조차 주지 않는 아이들 앞에서 수업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라고 말한다.

■ 알아차림의 감정조절 효과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교사들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교사들은 한 발짝 물러서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에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이 여유로울수록 교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교사가 수행으로 마음의 평화를 체험하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더 수행하고 싶어한다.

교육 명상 과정의 학생들은 명상 교육과 자비 교육 등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받는다. 그리고 여름에는 교육 명상 동호회를 통해 3주 정도 함께 지낸다. 교사들은 명상 수업을 듣고 지혜를 체화하고 동호회를 만든다.

리처드 브라운은 나로파대학의 교육 명상과 복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다. 이 기간 많은 시간을 자신의 마음과 몸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운다고 리처드는 말한다.

■ 먼저 자신을 돌보기

교사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교사가 마음이 성숙되면 교실에서 아이들이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알아차림의 제1단계는 교사 자신의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교사는 계속 머리를 쓰고 있는 동안 몸은 스트레스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교사들은 몸을 잘 살펴 이완하고 쉬어가야 한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학생이 말할 때 단지 소리뿐만 아니라 학생들 마음을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사들은 말하기 전에 학생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잠시 멈춰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학생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면 그때 아이들은 교사들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 가만히 앉아 있음의 가치

리처드는 교사들에게 그냥 가만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한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나고 엔지 교사는 "교사들의 성공은 단지 학생들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www.ednewscolorado.org



감정을 조절하려면 경험들을 잘 살피야

삶을 탐구하고 그 가능성을 알아보려면 어떤 것이든 우리의 경험을 잘 살피야 한다 (타르탕 톨쿠). 때때로 남가연구소에서 남가 심리학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 정도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과에 놀라고 만다. 화나 걱정, 두려움 등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감정은 물론이고 지루함과 불만족의 감정까지 고려한다면 족히 50%가 넘는다. 더구나 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다. 아무도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싶어하지 않는데도 감정은 어디선가 돌연 나타난다. 마치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감정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해야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화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걱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남가 심리학은 사람들에게 내면의 경험을 꾸준히 관찰해서 감정을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집착을 놓는 과정을 스스로 익히라고 한다. 이 길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 이를 따라가 보라. 이때 심장 박동수, 호흡 속도, 근육의 긴장 정도를 알아차려라. 감정이 커지다가 누그러질 때 감정 변화는 어떠한지 가

능한 세밀하게 관찰해 보라.

화가 난 상황에서 마음을 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차분하거나 안정되어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 불러와서 관찰하는 것이 좋다. 심상이나 기억을 활용해 마음을 휘저어 보라. 최대한 강렬하게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느껴 보라. 감정이 일어나고 격해지면서 생각이 어떻게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지를 살피보라. 한 생각이나 심상은 단지 지나가는 일시적인 사건에 불과할 뿐인데 생각은 재빠르게 움직여 심각하고 그럴듯한 의미를 부여한다. 일어나는 생각과 심상을 보면서 마음을 관찰하되 이야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정신 작용이 움직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꾼"에 현혹되지 않으면 내면의 생각과 심상을 좀 더 명확하게 깊게 알게 된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긍정적인 마음의 힘은 광대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은 2,500년 동안이나 이 잠재력의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인간 정신과 몸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남겼다. 이러한 통찰과 수행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밝은 지혜를 일깨울 수 있다.

Nyingma-Institute@Nyingma.org

야크, 불교와 생명

인도, 히말라야 - 뚝뚝 징파스님과 22명의 일행(목동과 집꾼)이 계곡을 건너는 경로를 선택한다면 야크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래서 스님 일행 22명은 높은 산을 넘어 목격지인 로웰링 계곡에 가려 한다. 징파스님은 이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찍기로 했다.

"영화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신 라마 조파께서 부여한 임무이다. 자연과 함께 하는 여정이므로 잘 찍어 동물들의 자유에 대해 공유하고 싶다"고 징파스님은 설명했다. 스님은 네팔에서 식용 목적으로 야크를 사고판다는 말을 듣고 이 일을 계획했다고 한다. "네팔 유목민들이 야크를 돌볼 인력이 부족해지자 내다 팔기 시작했다. 그래서 야크를 돌볼 안전한 장소를 물색했다."

"동물 방생은 티베트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 방식이다. 동물을 방생하는 것도 수행이다.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스님은 강조했다. 스님은 또 동물 방생이 6바라밀 중 보시 바라밀의 결정체로서 "중생의 생명을 구해 새 삶을 줌으로써 못생명이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수의 야크를 데리고, 높아서 아무도 살지 않는 위험한 산을 넘으려는 모험을 무릅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는데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해 동안의 수행정진의 힘 때문인 것 같다.

"부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에 사무쳐 왔다. 속 뜻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자 했다. 문제가 일어나도 이내 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 믿음과 이해가 깊어져 수행에 끊임없이 전념할 수 있었다." 스님은 불교의 핵심은 집착과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부정적인 모든 것은 삶에 대한 그릇된 견해에서 일어난다. 고통은 마음에서 난다. 이 점을 이해한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사진과 영화 제작에 열정적인 징파스님에게 이번 장정은 자신의 관심사를 대중과 소통할 첫 번째 시도가 될 것이다. The Hindu [2012. 7. 9]

대구에서 제1회 몽골나담축제 열려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이사장 지성스님)이 주최하고 대구마하이주민센터(소장 이수찬)가 주관한 “제1회 대구몽골나담축제”가 지난 7월 8일(일) 대구 방천리 환경자원사업소 체육공원에서 몽골출신 이주민 포함 약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구마하이주민센터 지도법사 덕현스님(아미사주지)은 축사를 통해 “몽골건국 806주년과 독립 91주년을 축하하는 나담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대구경북지역에 살고 있는 몽골 이주민들이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어울려 지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나담이란 말은 축제나 경기, 게임을 뜻하는 몽골의 전통축제이다.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국내 몽골인들을 위해 현지 축제 개최일에 맞춰 올해 처음으로 대구 나담 축제를 개최했다. 나담축제 진행은 몽골 국기게양과 애국가 합창으로 축제의 문을 연 뒤, 몽골 노래공연, 전통 춤 공연에 이어 몽골 전통씨름인 부흐(남자부), 양이나 염소 뼈를 갖고 노는 사가이, 팔씨름(여자부), 달리기, 줄다리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자야씨는 “대구에서 지낸 지 2년째인데, 나담축제가 열려서 너무나 좋고, 행사에 스님들도 함께 참가해서

좋았다. 앞으로도 행사가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참가한 바트보양스님은 “한국에 몽골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대구마하이주민센터에서 나담축제를 열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한국에는 몽골출신 이주민이 2만 8

천 명 정도 거주하며 대구·경북에는 약 1,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몽골의 초원을 닮은 너른 잔디구장에서 나담축제날만큼은 몽골인들을 위한 흥겨운 축제의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발전하는 제2, 제3의 나담축제를 기대해 본다.

대구마하이주민센터 053-592-1260



① 축제에 먹거리가 빠질수 없죠, 양고기 튀김만두 호소르 ② 나담축제의 하이라이트 몽골씨름 '부흐' ③ 한국의 게임도 함께 즐겨요~ 영차영차 줄다리기 ④ 몽골 전통의상 '누가 누가 더 멋진가요?'

히말라야 라마회, 연등회 시상식에서 원력상 수상

지난 7월 6일 연등회 시상식에서 히말라야 라마회가 외국 참가 단체로는 유일하게 원력상을 수상했다. 히말라야 라마회는 한국YBA(총재 지광스님)의 동두천 네팔법당 용수사가 후원하는 단체로 용수사 주지 우르겐 스님이 회장으로 있으며, 티베트 불교 전통을 따르는 네팔 비구스님들과 재가스님들의 연합회이다. 히말라야 라마회는 2004년부터 매년 연등회 국제불교문화마당에 초청되어 티베트 예불과 샌드 만다라 제작 시연을 했는데, 특히 피약별 아래서

4-5시간씩 샌드 만다라를 제작한 것이 티베트 수행문화를 널리 알리고 연등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했다는 공을 인정받아 올해 상을 받게 된 것이다.

시상식에 참여한 우르겐 스님은 “한국의 연등회는 정말 훌륭한 불교의 전통문화행사라고 생각한다. 우리 히말라야 라마회도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국YBA 02-6414-1034



(좌)조계종 총무부장 지현스님에게 상패를 전달받는 우르겐 스님 (우)불교문화마당에서 샌드 만다라 제작 시연을 선보이는 히말라야 라마회 스님들



의정부에 태국명상센터 개원해

▼ 개원 법회에 앞서 진행된 탁발의식

지난 7월1일, 경기도 의정부에 태국명상센터(센터장 분유스님)가 개원하였다. 현재 한국에는 약 4만 명의 태국인들이 와 있으나 지금까지 자체적인 법회는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제 의정부 태국명상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불교에서는 탁발을 하는 전통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꼭 탁발을 진행한다. 이날 개원법회에서도 법회에 앞서 분유스님과 주스님은 탁발을 하였으며, 재가자들은 기쁨과 존경의 마음으로 다양한 공양물을 올렸다. 이후에 개원법회가 시작되었고, 명상과 센터 개원을 위한 활동과정을 소개하고 법문과 축원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원법회에 참가한 이주여성인 싸이룡씨는 “태국법당이 생겨서 너무나 기쁘다. 매주 스님을 뵈고 법회를 할 수 있고 스님께 한국어도 배울 수 있어서 좋다”며 센터 개원을 기뻐하였다. 태국명상센터에서



는 매주 일요일 법회를 진행하며, 명상지도와 더불어 한국어교실도 진행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법회와 태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교류와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태국명상센터 070-4407-0072

백중물품 후원을 기다립니다!

우리분절은 부처님과 스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 고통 받는 조상의 왕생극락(往生極樂)을 발원하는 효도의 날이요, 조상의 영혼을 제 갈 길로 인도하는 천도의 날입니다. 백중기도 회향 후 받는 보시 물품은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들의 후원품으로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물품_ 영가천도재용 속옷, 양말, 비누, 쌀 등

후원문의_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13번지 전법회관 3층 B동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2012년 베트남 해외봉사

신짜오 베트남 앤 코리아

일정: 2012년 8월11일~8월17일(6박7일)
 장소: 베트남 하노이시 탕화성
 주최: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후원: 행정안전부, 대한불교조계종

- 활동1. 의료봉사** 내과, 소아과, 외과 무료진료 및 약품지원
- 활동2. 확장실신축** 농촌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화장실 신축 공사
- 활동3. 교육지원** 시각장애직업훈련센터 교육 기자재·컴퓨터 지원
- 활동4. 친선교류** 문화교류활동 및 지역 주민 생필품 지원

후원 및 문의: 02)720-7095

농협 053-01-272670 (예금주: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여러분의 후원은 베트남 의료봉사를 위해 소중히 쓰겠습니다!